

평생교육적 노인교육

全 禎 泰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늙고 죽게 되지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대인의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노년기를 아무런 대책없이 보내는 것보다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리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제기해 본다.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효도를 강조하고 노인으로써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심오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자관계에서 효행이 옹당 인류의 도리로 강조되었다. 효에 대한 체계적인 강조는 특히 儒學에 명시되었는데, 「예기」에 ①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어버이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② 어버이를 잘 봉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효도라는 三孝가 기록되어 있으며,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① 부모를 봉양하는 것, ② 부모의 상례를 치루는 것, ③ 부모의 제례를 지내는 것 등의 三行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순수한 감정을 이상형으로 이상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효행은 옹당 인간의 도리라고 강

조되어 왔다 (문현상, 전정태, 오수열, 1990).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해체의 과정을 겪어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정치적, 종교적, 교육적 기능이 점점 분화되어 갔다.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도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익의 극대화 현상은 「능력없는 자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점점 인정과 정서가 메마르고, 이해타산 중심의 인간관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인은 예전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실추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고 비생산적인 존재로 위치가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노인들에게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평 생 교 육

평생교육이란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생활의 질 향상, 자기완성, 사회적 및 직업적 발달에 관한 학습을 제도적인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 가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양, 사회, 심리, 건강, 보건, 여가선용, 취미 (예, 서예, 음악) 등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교육기간이나 훈련수준이 일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노인들 가운데는 한정된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는 반면, 상당히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강의는 보통 초중등학교, 대학교, 노인회관, 공공집회장, 사회복지기관, 노인정, 양로원, 직장, 아파트촌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육목적도 그 범위가 넓어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태도의 양양, 새로운 지식의 흡수, 교양, 노인 자신과 가족 또는 친구를 보호, 부양하는 방법의 교습, 취업준비 등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김태현, 1981; 정지웅, 김동일, 1984).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일련의 조건들에 걸쳐 교육을 주최하는 측의 의도와 사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대체로 55세 전후의 개인들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이상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적절한 상담, 서비스의 결여, 교육장소의 불편함, 운영자금 부족, 교육프로그램의 결함, 노인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노인들이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법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인격성장을 하고, 동료노인을 보살피는 방법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는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노인교육은 개개 노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 기능 및 태도를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노인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72년 10월 종로 태화관에 위치한 「서울 평생교육원」이 개설한 노후생활 강좌였다. 그후 1973년에는 명동에 있는 가톨릭 여학생회관에서 「덕명의숙」이 노인학교를 개강했으며, 뒤이어 한국성인교육회, 대한노인회, 대한삼락회, 국제승공연합회, 대한적십자사, YMCA, YWCA, 한국부인회, 새마음봉사단, 청년회의소, 종교단체, 일부 학교의 부설기관 등에서 노인학교나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김동배, 1989; 정지웅, 김동일, 1984).

노인교육의 필요성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육 등의 노인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현상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부양에 대한 의무감의 의식을 퇴조시켰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은 더욱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인들에게 변동하는 사회를 인식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성규탁, 김규식, 1988).

- ① 노인교육은 신체, 생리, 성격, 지식, 생활습성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발전시켜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노후의 여가를 선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을 시켜서 노인에게 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역할상실을 방지한다.
- ③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사회의 변동상황을 이해시켜 세대간의 이질감을 해소한다.
- ④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켜 변동사회에 적응시킨다.

노인교육의 목적

노인교육의 목표는 대상 지역이나 노인의 특성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매개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제태, 1978). 현재 우리나라도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교육에 필요한 제반 영역이 아직 미비하며,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한편 노인교육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복지시책이 진전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제도의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들로 하여금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그런 생활속에서 삶의 보람을 터득할 수 있다고 인식시켜 주는 일이 노인교육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작성, 지도자 양성, 노인교육의 법률적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하며,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빠를수록 노인교육도 올바르게 정착될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현존 노인학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내용이 노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우리나라 최대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학교의 운영지침에 있는 「노인학교 운영규정」에 의하면, 교육목적이 ①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상을 일깨워 주고, ② 노인 각자가 지니는 경험과 지식을 재개발시키고, ③ 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 ④ 노인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여 그들의 여생을 보다 보람있게 기여하는데 있다고 적혀 있다 (박재간, 임춘식, 1983).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양과목 30%, 국내외 정세 30%, 기능습득 20%, 건강관리 및 기타 내용이 20%이다. 여기에서의 교양과목이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교양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고, 국내외 정세에 대한 과목은 현대사회의 적응력을 배양하려는 목적에서 설강되었다. 그런데 전체 교양과정중 교양과목과 국내외 정세의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인데, 이것이 과연 노인들이 원하는 학습욕구에 대한 비율안배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문제의 해결방법과 관련된 강의를 원하는 비율이 60%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건강관리에 대한 비율이 70%인 것을 상기한다면, 교과과목의 배정비율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당한 수의 노인들은 취미나 오락 등의 프로그램도 원하는데, 상기의 운영규정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역시 서울 평생교육원이 노인학교를 개설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설립취지문에 의하면, ① 격변하는 시대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인 사고능력을 배양시키고, ② 노인들로 하여금 지난날 자신이 터

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④ 노인학교라는 광장을 통하여 동년배들과 교우관계를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대한노인회, 1989). 한편 노인학교 중에는 음악, 무용, 취미, 오락 등에만 전념하고 교양강좌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강사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교양강좌가 없어도 노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 이는 강의 보다는 대화의 상대자를 구하여고, 고독이나 고립에서 탈피하려고, 또는 자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인교육의 실시요건

평생교육의 필연성에 비추어 노인들에게도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김제태, 1978).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지식의 폭발에 대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과거의 지식이나 기술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출현으로 쓸모없게 된다. 예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어 한번 배운 지식이나 학문의 원리로 한 평생을 살 수 있지만, 현대에는 새로운 것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의 노인들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노인들의 행동양식을 수정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정보의 홍수와 가치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맞게 된다. 그들도 여가를 선용하여 생의 가치를 다른 면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현대는 사회기능과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음을 주지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무료한 시기이며, 변동에 대처하는 태도가 민첩하지 못하고, 사고의 신축성도 굳어져 있으므로 자신을 지각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노인의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교육영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김종서, 1982).

- ① 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② 노년기의 건강,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 및 이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노년기의 질병은 대부분 기능적이며, 또한 고령자의 노쇠현상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동요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노년기의 육체적 변화는 예정된 일이며, 근심이나 걱정 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심리적인 태도를 바로 잡아 준다.
 - ③ 친구를 잃게 되는 슬픔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④ 집단의 소속관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⑥ 정년퇴직에 따른 수입감소에 적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⑦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⑧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나 국제적인 감각에 접근하려는 의욕과 이에 적응하려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⑨ 노년기를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일과표를 작성하면서 생활을 하고, 누구에게든지 즐거운 친구가 되어 주며, 모양을 매력있게 내며, 명승지나 유람지를 찾아다니며, 세계와 접촉하여 안목을 넓히는 것 등이다.
- 이상과 같이 노인을 재교육시키면 그가 노련한 경험을 지닌 조언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인 스스로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기상실중에 빠지지 않게 만들며, 잉여 인간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떨쳐 버리게 만드는 길이다.

노인교육의 교재 및 강사진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교육을 위한 교재가 여러 권 출간되었다.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1977년 공동으로 「노인교과서」를 펴냈으며, 한국성인교육회가 1978년 「성인교육독본」을, 연희노인학교에서 1980년 「즐거운 노래집」을, 한국인문제연구소에서는 1980년 「고령자 교과서」를 발간했다. 끝이어 대한노인회는 1982년 문교부의 지원으로 「노년기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교재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이러한 교재들은 편찬과정에서 많은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재들이 노인들의 학습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학교용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서 우선 노인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교과과정이 정해진 다음에 그 교과과정에 부합되도록 단원을 설정해서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 또한 노인층에는 저학력자의 비율이 압도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재를 편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를 살펴 보자. 현재 노인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유형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상당한 강사료를 지불하고 교수나 특정문제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관공서의 공무원이나 지역사회 유지들을 초빙하여 무료 강의를 듣는 경우이며, 셋째는 노인학교의 운영책임자 단독으로 연중 계속 강의를 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현재 첫째 유형의 강사진을 모시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만한 책임자가 드물고,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할 때 일정한 강사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학교에서는 강의 일정표나 교과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설령 수업 일정표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강사가 못나오게 되면 교과목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밖에 없어 수업이 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외부강사중에는 노년기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며, 노년심리학이나 노

년사회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아 그들의 강의내용이 수강자로부터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노인교육의 운영 및 시설

현재 노인학교의 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관광 여행, 사무비, 인건비, 회식비 등이며, 강사료나 교재구입비 등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김제태, 1978). 곧 노인교육을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본연의 자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학교 운영자들의 분발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노인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설제공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의 자질을 거론해 본다(박재간, 임춘식, 1983). 노인교육의 운영형태는 대부분 운영자의 교육정도, 교양, 자질, 성격, 경험, 직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전에 조예가 있는 운영자는 서예, 한문, 경전 등의 강의에 중점을 두고, 교사출신의 운영자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이나 욕구충족을 이해시키는 교과목을 중요시하고, 음악이나 무용에 소질이 있는 자는 역시 그 분야를 강조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운영자는 음악, 무용, 관광여행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다.

노인학교는 문화의 예술의 창조적 활동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수업시간의 일정비율은 음악, 무용, 시조 등으로 메꾸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수업시간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역시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중에 학교의 운영이 특정 종교의 선교활동에 이용되기도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중에는 운영자 자신의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는 곳도 있다. 노인학교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되어 나가려면 「노인학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노인교육을 위한 시설을 고찰하면, 대부분의 노인학교가 자체 시설이 없어 공공건물이나 개인 건물을 주당 몇시간씩 임대 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곧 시설의 사용시간의 제한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진국처럼 노인복지회관이 많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와서 교양강좌, 취미나 오락 프로그램, 문화나 예술적인 창작활동에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 언

노인들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제공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부양과 관련된 가치인 효의 개념과 연계된다. 효의 개념은 부모 또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철학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노인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몇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교육의 개념과 교육목적의 정립, 교과과목과 운영 지침의 설정, 강사진의 확보와 형성, 각종 교재의 편찬, 운영자 대상의 지속적인 연수교육, 교육시설의 보완 등을 전담하고 지원하는 협의기구나 집행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노인문제 또는 교육관계 전문가, 노인학교의 운영자가 주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교육은 부처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 단독으로 노인들이 직면하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문제와 보건교육은 「보건사회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과목의 편성은 「교육부」가, 노인들의 직업훈련은 「노동부」가 관여해야 하며, 원예나 관상수 교육은 「농수산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셋째, 노인교육에 소요되는 재정

은 복지적인 차원 또는 의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학교 아동들에게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제도까지 마련하면서도 노인교육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조치이겠지만, 앞으로 노인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재정에 의해서 충당되도록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동배 (1989)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 정부 제2장관실 보고서 89-1 (pp.139~150).
- 김제태 (1978) 노후생활과 평생교육. 서울 : 한국공사.
- 김중서 (1982) 노인교육의 교육과정개발. 서울 : 대한노인회.
- 김태현 (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노인회 (1989)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노인학교 운영규정). 서울 : 대한노인회.
- 문현상, 전정태, 오수열 (1990) 인간과 윤리. 서울 : 대왕사.
- 박재간, 임춘식 (1983) 노인학교 노인교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성규탁, 김규식 (1988) 한국노인의 안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 69-88.
- 정지웅, 김동일 (1984) 노인교육의 현황과 요구. 서울 : UNESCO 한국교육위원회.

-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501-759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전정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